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June 6, 2019 Vol. 674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목사가 LA를 방문하고 고국을 위해 기도를 요청해왔다.



©pixabay.com

권태진 한교연 회장 “고국과 교계 연합 위해 기도해주세요”

미주 방문하고 LA 교계 지도자들에게 기도 요청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권태진 목사가 LA를 방문하고 고국을 위해 기도를 요청해왔다.

지난 5월 31일 JJ그랜드호텔에서 남가주교협(회장 한기형 목사) 초청으로 열린 교계 지도자 간담회에서 권태진 목사는 “병자였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쟁의 비참함을 목격했었다. 그때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라며 “한교연 회장이 되고 나서 어떻

게 하면 분열하고 있는 한국 교계 연합을 이뤄낼까 생각했는데 답은 기도밖에 없다. 현재 한국 교회 안에

무너만 크리스천인 직분자들이 너

무 많다. 성경에 보니 모세가 아말렉족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

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했다.

권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가 무너졌다. 30여년 전 도봉산, 삼각산에서의 끊거웠던 기도가 끊어지니 서로 싸우고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제는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 상황은 안보, 정치 등 모든 것이 위기이다. 그렇지만 정치권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며 “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각 도마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LA에서도 성령을 의지해 기도의 움직임이 일어나

서 회개, 교회 부흥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권 목사는 이날 한국 교계가 학연, 지연 등을 극복하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운동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미국에서도 기도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권 목사는 한교연이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국에서 오산리기도원 등에서 비상 특별기도회를 이어 간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미국 루이지애나주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민주당)가 태아의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안을 찬성 79, 반대 23표로 통과시켰다. 태아의 박동은 통상 임신 6주 무렵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법안은 낙태금지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임신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규정을 어기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

며 의사 면허도 박탈된다. 한편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 루이지애나 등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가 7개로 늘면서 미국에서는 낙태를 합법화 했던 1973년 로드웨이드 대법원 판결 당시와 같이 낙태 친반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 2명을 임명함에 따라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다뤄질 낙태 관련 사건에 대한 기준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은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내놓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낙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신후기의 낙태권까지도 보장하는 등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

“세상의 소망은 순수한 복음의 능력”

벤엘교회 빌 존슨 담임목사가 “미국 전역에서 사단의 ‘불경건의 영’이 복음의 메시지를 잠재우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벤엘뮤직의 연례행사인 제3회 ‘헤븐 컴 콘퍼런스’의 강연자로 나선 존슨 목사는 “세계의 극

히 일부 지역에서만 부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1900년 대 아주사 거리부흥과 최근 빌리 그

래함 목사 등 과거 수십년 동안 다양한 부흥의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주님은 울부짖음과 기도에 귀를 기

울이시고, 30년 전, 40년 전 이곳을 위해 헌신했던 삶을 기억하신다”고 말했다. [2면에 이어서 계속]

고수익,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개강: 6월 1일(토) ATI 대학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리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예배 : 오후 5:30
- 금요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213)364-7289, (213)605-1983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辱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중국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미주장신대는 제 39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6월 1일 훌러튼장로교회에서 거행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2019년도 졸업 및 학위수여식을 3일 은혜한인교회에서 거행했다.

“선교적 목회로 사역하는 동문 되어달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39회 졸업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제 39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1일(토) 오전 10시 훌러튼장로교회에서 거행했다. 졸업식에는 학사 1명, 목회학 석사 25명, 크리스천상담심리학 4명, 선교학 철학박사 1명 등 총 31명이 졸업 가운을 입었다.

이상명 총장은 격려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앗과 같은 자들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어떤 이들은 터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라면서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자”라고 했다. 이 총장은 “졸업생 여러분들이 영성과 지성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시고 하나님의 은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으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

개 치듯이 비상하여 올라가기 바란다”라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작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보다 큰 축복과 칭찬을 받도록 하자.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라. 세상에 길들여진 영성이 아닌 애성적 영성으로 인습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관료적 목회가 아닌 선교적 목회로 사역하는 동문이 되어달라”고 졸업생들을 독려했다.

1부 감사예배에서는 이기성 목사(KPCA 총회장)가 ‘종으로 사는 기쁨’(창세기 24: 1-9)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유영기 목사(미주장신대 이사회 이사장)가 축도했다.

이날 특별히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원로목사)가 선교학 철학박사 학위를 학교 최초로 받았다.

“주님과 연합해 열매 맺는 인생 되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졸업식

그레이스미션대학교(최규남 총장)가 2019년 졸업 및 학위수여식을 3일 오후 7시에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거행했다.

학위수여식에서 선교학박사 4명, 목회학석사 13명, 기독교교육석사 4명, 선교학석사 1명, 대학부 14명이 졸업의 영예를 차지했다.

최규남 총장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한 참된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만이 선교현장에서 현지인을 제자훈련 할 수 있다. 면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노력하자”라고 권면했다. 이어 최 총장은 “또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라고 했다. 늘 삶 중심에 예수님이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의 친밀을 추구하기 바란다”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연합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졸업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답사를 한 목회학 석사 졸업생 이미선 씨는 “총장님, 학장님 등 많은 교수님들 덕분에 지식적,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세상을 보는 관점도 변했다. 학교에서 느끼고 배운 모든 것이 저를 통해 성숙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며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위 수여식은 한기홍 이사장이 ‘상급 받는 주의 종이 되십시오’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축사를, 김병학 교수가 축도했다.

“경계의 목적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제 24회 미주대한신학대학 학위수여식

미주대한신학대학·대학원(총장 박효우 목사) 24회 졸업식이 6월 2일(일) LA에 위치한 풍성한교회에서 거행됐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명예신학박사 6명, 신학박사 2명, 목회학 박사 4명, 목회학석사 2명, 신학사 4명, 선교학 학사 14명 등 총 32명이 학위를 받았다.

졸업식은 박효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재단 이사장 유당렬 박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강지원 목사가 기도한 후 운영이사 김영배 박사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봉독했다.

이어소 이윤선 목사의 특송 후 염락경 목사가 “경계의 목적은 사랑”(딤전 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

하는 사명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 선교지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 성공적인 삶을 열어 나가시기 바란다”라면서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승리하도록 하자”고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학위수여식은 박효우 총장이 진행했으며 최야곱 박사가 학위수여자들을 호명했고 이순권 박사의 축사, 백덕근 박사의 격려사, 졸업생 대표의 답사, 구영미 전도사의 교가, 원로목사회 증경회장 이태환 박사의 축도가 이어졌다. 이후 인사와 만찬 순서에서는 스포츠



2019년도 미주대한신학대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지난 6월 2일 풍성한교회에서 거행됐다.

분교학장인 김영배 박사가 인사와 광고를 전하고 기념 활영을 한 후 식사와 교제를 나눴다. 미주대한신학대학교는 2011년 5월 캘리

포니아 주주정부 교육국으로부터 정식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경건의 영이 들어차 있고, 진리의 메시지로 둔갑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모임도 좋아하지만, 진

정한 전도는 믿는 자들이 일터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복음을 살아낼 때 일어난다”고 했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ABHE TRACS CHEA
ATSCertified ABHECertified TRACSCertified CHEACertified

학위과정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유학생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기독교 상담학부 공개강좌

주제 : “진정한 나를 찾자”

일시 : 2019년6월 22일(토) 오전 9:30~오후1:00

장소 : 그레이스 라이브러리 GL1 강의실

대상 : 목회자 부부, 신학생, 평신도 및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강좌1

참 자아발견을 통한 중독치유

(술, 마약, 도박, 인터넷, 성, 종교중독 치유)

권오균 교수(Rev. Paul Kwon, Ph.D.)

주정부 인정 중독치료 상담사 : CATC-V; LAADC-CA

- 풀러신학대학원박사(Ph. D.)

강좌2

“나라는 넌 누구나?”

(육하는 성질 치유)

리디아 전 교수(Lydia Chun Psy.D.)

- 개인 임상심리학 박사, BIOLA

*참석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은 입학금 면제 혜택

LA Extension 강의 센터 운영 (3020 Wilshire Blvd, LA, CA 90010)

• 찾아오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St

20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입학 문의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W. Valencia Dr.

S. Brookhurst St



월드미션대학교 제 28회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 등 총 83명의 학생들이 학위를 수여했다.



미성대학교는 2일 시온성결교회에서 제17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라”

월드미션대학교 2019년 학위수여식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지난 1일, 동양선교교회에서 제 28회 학위수여식 갖고, 학부(성서학, 기독교상담학, 음악학) 학사 졸업생 28명, 대학원(목회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석사, 박사 졸업생 55명 등 총 83명의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특히 올해 학위 수여식에는 2017년도 라틴 프로그램 개설 후, 처음으로 6명의 히스페닉 준학사를 배출해 국제화를 향한 학교의 의지가 돋보였다.

이날 총장 메세지를 전한 임성진 박사는 “월드미션의 신학교육은 지식의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삶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양성에 있다”며 “하나님을 거부한 채 세상의 풍요만을 쫓는 이 시대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 월드미션의 동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향후 5년을 기독교 종합 대학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히 온라인 교육을 강화해 국제화 시대에 세계 유수 대학교와 어깨를 나란

히 하는 교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비전을 밝혔다.

임성진 박사는 “개교 30주년을 맞아 이민 사회의 자랑이 되는 학교에서 더 나아가 명실상부한 기독교 종합대학교로서의 기초를 세움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학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프로그램의 확장을 통한 중국계, 라틴계 등 타문화권 학생 교육, 한인 1.5세 2세를 비롯해 미국 내 타인종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한국어 영어 병행 교육, 목회 이론과 역량이 균형을 이룬 사역 멘토링 교육, 미서부대학교대학연합회(WASC)가입으로 간호학과와 경영학과 등 다양한 학과 개설 및 일반 상위학교로의 진학 및 학점 교류 등을 도모하겠다”고 학교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임 박사는 이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의료종사자 양성을 위해 간호학과(대학과정)을 설립, 신학교육의 경우 목회자 뿐 아니라 다양한 기독교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NGO 사역자 프로그램 도입, 온라인 프로그램 확장으로 전세계 사역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브라이언 기자

미성대학교 제17회 학위수여식

총 26명에게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수여

미성대학교(총장 이상훈 박사)는 2일 시온 성결교회에서 제17회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5명, 목회학 석사 6명, 상담학 석사 3명, 경영학 석사 3명, 목회학 박사 4명, 상담학 박사 5명 등 총 26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미성대 발전을 위해 8년 동안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학위수여식과 더불어 퇴임하는 류종길 총장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미성대 신임 총장에는 풀러신학교 겸임교수이자 소마대학교 학장을 역임한 이상훈 박사가 취임하게 됐다.

학위수여식 1부 예배에서 “새로 시작할 때 구해야 할 것”(왕하 2:9-10)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강준민 목사(생생명비전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장자의 권리와 함께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와 책임도 함께 가졌다”며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니라, 사명과 책임도 함께 받는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또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님이 삶과 같이 제자와 책, 교회를 남기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졸업식에서 훈화한 류종길 전 총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기독교인에게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며 “사랑으로만 일관하다가 사랑의 근본이신 주님 만나려 가는 우리 동문들과 성도들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졸업생들에게 축사한 전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송정명 목사는 “바울은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쓰고 전도자이자 사도였으며, 문필가이자 신학자로 큰 업적을 이뤘지만 늘 풋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 같아, 졸업은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배움의 길을 걷는 자세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미성대 명예총장 이정근 목사는 “많은 노력과 수고로 학위 모자를 쓰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님도 학위가 있었을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쓰신 학위 모자는 가시 면류관이었다”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졸업생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목회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뜨거운 사명감과 생명 걸고 역량 키우라”



개혁장로회대학·신학대학원 38회 학위수여식이 지난 1일 대홍장로교회에서 거행됐다.

KAPC 총회 직영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신학대학원(총장 이정현 박사) 38회 학위수여식이 지난 1일 대홍장로교회(권영국 목사)에서 거행됐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목회학 석사 3명, 기독교교육학석사 1명 신학

박사 1명 등 5명이 학위를 받았다.

민종기 박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학위수여식은 김성일 교수(KAPC LA노회장)의 대표 기도, 박희성 박사의 성경봉독, 정이영의 찬양 후에 KAPC 신임총회장인 양수철 박사가

개혁장로회대학·신학대학원 2019년 학위수여식

“주의 종이 가져야 하는 자세”(행 20: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동진 학감의 학사보고, 이정현 총장의 훈시, 안병권 교수의 졸업생을 위한 기도, 졸업생 대표 이용재 씨의 답사 후에 최갑종 교수의 축사, 박대근 교수의 격려사, 정인재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정현 총장은 “갈수록 목회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지만 뜨거운 사명감과 생명을 걸고 믿음과 지식, 인격과 사역의 역량을 키우라”고 권면했다.

1978년에 설립되어 1,250여명의 목회자와 30개의 노회 650개의 지교회를 산

하에 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은 주정부 교육국(BPPE)의 인가(#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해 학사 과정(B.B.B.), 기독교 교육학 석사(M.C.E.), 목회학 석사과정(M.Div), 편입생 과정, 편목 과정, 목회학 박사 과정(D.Min), 신학 박사 과정(Th.D.)을 모집 중이다.

문의: 626-675-8010



꿈을 펼치는 대학 사명을 이루는 대학 조지아센추럴대학교 남가주분교 배움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지아센추럴대학교(GCU)는 미 연방교육국(USDE) 및 고등교육협의회(CHEA)에서 인증하는 북미주신학대학협의회(ATS)의 정회원 신학교육 기관으로 1993년에 교육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설립되어 지난 27년간 미주 한인들의 신학교육과 아프리카 등지의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2019년 6월에 GCU 남가주 분교를 시작하여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개 세미나

청교도신학과 그리스도인의 삶
6월 17~18일(월,화) 오전 10시~오후 5시

오덕교 박사

- 총신신대원, MDiv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D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역임
- 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 총장 역임
- GCU교회사 객원교수

복음의 진수 로마서 강해
6월 20~21일(목,금) 오전 10시~오후 5시

최갑종 박사

- 고신신대원, MDiv
- Iliff School of Theology & University of Denver, PhD
- 백석대 총장 겸 신약학 교수 역임
- GCU 신약학 교수

감사예배 & 리셉션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하며 환영합니다

6월 19일(수)
오전 11:00 ~ 오후 1:30

신대원 인тен시브세미나

성경해석의 원리와 적용
6월 24~29일(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황진기 박사

- 총신신대원, MDiv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 Fuller 한인목회학박사원 원장 겸 신약학 교수 역임
- GCU신학대학원 학장 겸 신약학 교수

* 공개세미나는 등록비(점심식사비 포함)가 매 세미나당 50불입니다. 사전등록시 50퍼센트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신대원 인тен시브세미나는 신대원 학위과정 입학 절차를 거쳐 코스워 학점으로 등록시에 등록금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공개세미나 온라인 등록과 신대원 과정 입학 및 인тен시브세미나 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cuniv.edu)를 참조 바랍니다.



GEORGIA
CENTRAL UNIVERSITY

GCU SOUTHERN CALIFORNIA EXTENSION SITE

2100 S. Stimson Ave. Hacienda Heights, CA 91745

남가주분교 디렉터: 김병학 박사 213-392-0409, claykim@gcuniv.edu

본교 입학처: 770-220-7905, admissions@gcuniv.edu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14회>

2019 실크 웨이브 미션의 킹덤 아웃리치 보고

미주에서 한인교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실크웨이브 미션이 13주년을 넘어서면서 한 총 사역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 감사하면서 또한 그만큼 거룩한 부담이 생긴다. 실크 웨이브 미션은 터키를 비롯한 이슬람권의 복음을 위해 연합중보기도의 장벽을 세우고자 시작했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처음엔 현지 장기선교사 연합과 한국 미국의 중보기도자들의 연합으로 터키 안탈리아에서 시작된 연합중보기도회가 세월이 거듭되면서 참가하는 기도동역자들이 많아지고, 터키 현지인 교회들이 연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는 이어서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내로 350만 이상 들어오면서 실크웨이브 미션의 사역방향이 중보기도와 더불어 터키에 들어온 난민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적극적 선교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처음엔 B & B 운동을 전개했다. 성경과 생활품을 난민들에게 제공하며 그들의 텐트에 다가가는 선교 전략으로 시작되었다. 너무도 시급한 난민사역이기에 더욱 많은 미주와 한국에서의 교회들이 동참했다. 그렇게 발전하면서 선교회의 사역은 직접 현지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노력했다.

올해도 미주와 한국에서 140여명의 선교 참가자들이 연합하여 터키와 이집트 등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터키 내에서 팀을 정했다. 쿠르디스탄팀과 이스탄불팀이다. 그리고 이집트 팀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었다. 20대부터 70대까지 평신도와 목회자 그리고 1세와 2세들의 연합으로 아웃리치 사역이 진행되었다. 의료사역, 어린이 사역, 텐트 방문 등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열심히 사역했다. 이집트 팀은 현지 장기선교사를 가정에서 나뉘어 머물면서 현지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선교사

역을 감당했다. 실크웨이브 미션은 미주와 한국에 각기 운영이사회가 있어서 선교회의 사업계획, 예산 등을 정하고 계획대로 기도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필자도 창립 때부터 후원하며 10여년간 이사로 동역하고 있으며 참여한 이사들의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선교사들과의 연합 등에서 매우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사회 운영에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동역하고 있다. 선교회의 주역 사역중에 하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지에서의 교회개척 사역이다. 현재 28유닛(가정 또는 개인)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교회개척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의 생활비와 훈련 및 후원을 선교회가 담당하고 있다. 실크웨이브미션의 사역 리더쉽들이 대표 김진영 선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개척교회를 담당하는 현지사역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면담하고 기도한 끝에 터키와 이집트 등지에 현지 교회개척자들을 세웠다. 그리고 실크웨이브 미션과 밀접하게 동역하는 현지 장기선교사들을 연합하여 있다. PIT(터키선교사파트너)와 PIE(이집트선교사파트너)라 한다. 그들과 연계하여 현지인 교회개척자들을 돌보고 훈련하고 영적 네트워크를 이루며 사역한다. 그런 리더쉽들의 성실과 겸손과 책임감 등을 보면서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실크웨이브 미션은 미주와 건강한 교회와 함께 동역해 가기를 바라고 있다. (계속)



제3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단체사진

제4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 섬기는 나성순복음교회, 7월 22-24일까지. 등록 마감은 6월 21일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은 한인교계를 섬기고자,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열기 힘든 교회를 위해, 제4회 청소년 연합수련회(Joint Youth Retreat)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는 '믿음에 굳게 서서'(Stand Firm in the Faith, 고린도 전서 16:13)라는 주제로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에서 7월 22일(월) 오후 3시부터 24일(수) 오후 3시까지 열린다. 등록 마감일은 6월 21일(금)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예배 및 집회, 물놀이(Drop Zone Water Park), 조별 발표, 레크레이션 등이며 데이빗 김 목사(버지니아 호프웰순복음교회 담임)가 강사로 선다. 참가 대상은 중고등부 학생(6-12학년, 2019년 9월 기준)으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교회당 등록 인원은 15명 이하로 제한한다.

신청은 나성순복음교회 웹사이트(www.lafgc.com)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문 광고의

QR코드를 사용해 등록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이며 행사는 영어와 한

국어로 진행된다. 주최측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 시기

에 영적 도전을 주는 수련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남가

주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 상황, 학

생 부족, 교사 부족 등 다양한 이유

로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여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기도원에서는 나성순복음교회(진

유철 목사)와 함께 남가주 교회들

을 섬기고자 매년 7월 연합수련회

를 초교파로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목적인 "한인 차세대 청

소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게 하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 행사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열리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지난 2016년 1회 연합수련회에는 9개

교단 21개 교회 소속 85명이 참가

했고, 2017년 2회 때는 12개 교단,

20개 교회 소속 97명이 참가했으며,

2018년 3회 때는 6개 교단, 19개 교

회 소속 114명이 참여했다. 또한 교

사, 보조교사, 식사 봉사자, 중보기

도자 등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

가해 학생들을 섬기며, 나성순복음

교회의 후원으로 숙식과 물놀이, 야

외활동 등 일체 비용이 무료다.

행사관련 문의는 나성순복음국

제금식기도원(951-928-4415)로

하면 된다.



남침례교단 남가주 지방회에서 하얏트 리젠시 뉴포트 비치에서 2019년 사모수양회를 개최했다.

남침례교단 남가주 지방회, 사모수양회 개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남침례교단 남가주 지방회(회장 이상래 목사)에서는 G&M 글로벌 문화재단과 함께 하얏트 리젠시 뉴포트 비치에서 2019년 사모수양회를 개최했다.

약 20개 교회 사모들이 참석한 이번 수양회에는 찰스김(Charles Kim) 목사의 인도한 드라마 바이블 북상 및 오디오북 북상 시간, 나눔, 식사, 산책과 예배 순서

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G&M 글로벌 문화재단은 드라마 바이블(Drama Bible)로 잘 알려 있는 재단이다.

드라마 바이블은 성경 전체를 더

쉽고 풍성하게 읽기 위해 풀라신

학교 교수들과 함께 개발한 성경

읽기 가이드로, 100여 명의 연기

자/성우의 현장감 넘치는 목소리

와 국내 최고 작곡가들의 배경음

악을 통해 성경의 이야기를 생생

하게 전달한다. 이번 '2019년 사모수양회'를 마친 사모들은 이번 수양회를 통해 쉼을 얻고 은혜를 충전 받았다고 간증했다. 남침례교

단남가주 지방회 총무 민승배 목사

는 "사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

면서 다시 한 번 후원과 도움을 준

G & M 글로벌 문화재단과 수고

해 주신 찰스 김 목사님과 간사님

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ly@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0TH
ANNIVERSARY

Enrolling K-9 for Summer Program
June 3 to July 26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ow Serving K-3
at New Campus!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 가능

가정의 달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PAUL KIM



MIKE LEE



JUSTIN KIL



CHARLEY JEONG



JAMES PARK



HARLEY KI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GRS 2019년 학위수여식

GRS, 2019 학위수여식에서 3명의 상관문화사역 박사 배출

글로벌리폼드신학대학원(GRS, 원장 김은수 박사) 2019년 학위수여식이 24일(금) 오전 11시, 애틀랜타 캠퍼스가 위치한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지난 몇 년간 GRS의 선교목회학 박사과정을 성실히 마치고 각자의 영역에서 수준 높은 논문과 함께 상관문화사역 박사학위(Doc-tor of Intercultural Ministry)를 취득한 세 명의 선교사가 기쁨과 감사를 나눴다. 김은수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전임 총장 엘렌 카리 박사는 마태복음 6장 25-33절을 본문으로 '사역의 목적'을 제목으로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먼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commencement)이라고 강조하며, '과연 이 학위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카리 박사는 "지난 몇년 간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와 시험, 논문으로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의 학위를 얻은 여러분들의 목표와 목적,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는게 아니다.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것이다. '먼저 구하라'는 명령형으로 절대 주권적인 구세주의 명령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순종해야 한다.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신다"고 주위를 환기했다.

이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 삶의 가장 중심이다. 이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인데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던지, 무슨 사역을 하던지 간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영향을 끼쳐야 한다. '의'는 하나님의 특성인데, 사역을 하며 자칫 나

의, 심지어 불의가 중심이 되기 싫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설사 팝박을 당하더라도, 설사 손해보고 삶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를 끝까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또 다른 학위를 받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며, 신실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란다"고 마쳤다.

예배는 이어 학위 수여와 후드 수여로 이어졌다. 졸업생 가운데 양한감 박사는 필리핀에서 20년간 한센인들을 위한 사역을 신실히 감당해 오고 있으며, 최근 미얀마에서는 이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김병석, 양귀선 박사 부부는 지난 10년간 이집트에서 현지인 선교사역과 멘토링을 통한 이집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신실히 감당해 오고 있다.

미 남부개혁주의 신학의 산실인 리폼드신학대학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Jackson, MS)의 선교학 박사과정(PhD/Intercultural Studies)을 계승하면서,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열방의 교회 및 선교를 위한 능력 있고 신실한 최고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작된 GRS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 그리고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다.

현재 미국 애틀랜타 본교 외에 필리핀의 아시아 사이트, 서울 사이트, 동경 사이트, 스파니쉬 프로그램을 위한 멕시코 사이트, 그리고 뉴욕과 LA에 사이트를 두고, 여러 지역에서 한국 목회자, 선교사들의 교육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현지인 지도자들의 최고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앤더슨 김 기자

고신총회 관계자들 미국장로교 선교회 본부 방문



고신총회, PCA 세계선교회 공식 방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 김성복 목사)에서 29일(수), 로렌스빌에 위치한 미국장로교(PCA) 선교회 본부를 방문해 1993년 미국장로교 한국선교부로부터 기증받은 대전의 땅(약 1,800평)과 건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긴밀한 협력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뚫었다.

현재 이곳은 고신총회 세계선교회(Kosin Presbyterian Mission) 선교센터와 훈련원, 선교역사 박물관은 물론 안식관까지 갖춘 전천후 선교 훈련 및 파송 선교사들의 안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2018년 6월 현재 244세대 463명의 선교사가 53개국에서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PCA교단 측 로이 테일러 총회 서기, 카티 베일스 선교현장관리 디렉터, 폴 쿠이스트라 전 세계선교부 코디네이터, 통역을 담당한 심수영 목사(한국어권사역 코디네이터), 고신교단과 깊은 관계가 있는 빌리 박 목사 등 관계자들은 고신총회장 김성복 목사, 사무총장 이영한 목사, 고신대학교 교학부총장 임창호 목사

를 형제의 마음으로 환대했다.

김성복 목사는 "한국 땅에서 고신교단이 보수적인 장로교단의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것처럼 미국 땅에서 장로교 정통신앙을 신실하게 지켜온 PCA를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PCA는 땅 기증 뿐 아니라 선교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고신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등 적잖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PCA 선교본부에 부동산 기증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 인사를 드린다.

현재 우리는 그 땅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신대학교 교학부총장이자 휴스頓 지역에서 PCA산하 교회를 목회한 바 있는 임창호 목사는 "2002년 총회 헌법을 개정하면서 한국 내 장로교는 물론 미국 내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헌법을 연구했는데, 고신총회 헌법이 PCA 헌법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교단 차원에서 서로 배워가면서 더불어 고신대학교와 커버넌트 대학 역시 활발히 교류 해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삶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후 9:00

써나김 담임목사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T. (323) 833-9090

LA 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높고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여 선교명령을 소중화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den 교회)
T. (213) 386-2233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여 선교명령을 소중화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den 교회)
T. (213) 386-223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00
세번기도회 오후 5:30 (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3407 W. 6th #412 (6기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New Church

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세번기도회 (화~금)
Youth예배 오후 11:00
토요연합새벽 예배 오후 6:00

한천영 담임목사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번기도회 (토) 오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2645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기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8:00
세번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8:00

강진웅 담임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천안예배 주일오후 2:30
세번기도회 화~토 오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1911 / laopendoor.org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맘을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번기도회 화~토 오후 6:00

박현성 담임목사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1911 / laopendoor.org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6:00
세번예배 오후 6:30 (화~금)
오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 www.churchla.org

새 일 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5기와 Westmoreland 크너 First Baptist Church 인연입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번기도회 화~토 오후 6:00

정세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후 11:00
중고등부,EM 오후 12:30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후 11:15
중고등부 오후 10:00
유년부 오후 11:00
토요새벽예배 오후 11:00
EM 영어예배 오후 10:00

곽건설 담임목사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세번예배 오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후 9:3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세번기도회 화~토 오후 6: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미움,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9:30
토요새벽예배 오후 9:30

박은중 담임목사
1부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9:30
토요새벽예배 오후 9:30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ecdew@hotmail.com

1부예배 오후 9:3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세번예배 오후 5:20 (월~금)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후 9:30
2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Youth 주일학교 오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내.침)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어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유도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찬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산,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구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 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화~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 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갓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도등부(유아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례 받아 함께 일려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0:30 45분
중고등부(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예배(경공부) 오후 8:45
금요예배(경공부)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30(분) 30분(토)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청년침례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asaram.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1655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밀집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6:00(화~토)

인랜드교회
예수의 은혜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마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성경공부 오후 7:30(화~금) 汉语圣经班: 周二 晚上 7:30半
주일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화~금) 6:00(화~토)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30 (지상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30 (본성전) EM 1부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상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시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 예배 오후 1:00 EM 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고등부(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시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종교등부 오전 10:30
2부 예배 오전 10:30 한인장로회 오후 12:30
EM 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전 7:30
유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토~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영어) 오전 6:00(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예배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화~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로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hchurch.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9:30 사립의 빛 봄일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11: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예배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예배집회 오전 5:30(화~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체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1951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 363-5887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0: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매일) 오전 7:30
교육부 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충현선교교회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와 한국 기독교의 역할’

태영호 전 공사, 선교통일한국 컨퍼런스서 기조강연



태영호 전 공사가 선교통일한국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5월 31일 “북한 주민 가운데 경제적 자율화를 점점 확대해 나간다면, 어느 한순간 경제적 권리 요구가 정치적 권리 요구로 넘어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며 “한국은 통일 이후 북한 건설에 대한 가장 시나리오를 공론화하여 특히 북한 핵심층, 엘리트층이 새로운 출로를 눈으로 보고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노르웨이에서 열린 ‘2019 오늘로 자유포럼’ 참석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2019 선교통일한국 컨퍼런스’ 장소로 이동해 기조강연을 발표했다. 30일부터 31일까지 캔팅턴호텔 여의도에서 선교통일한국협의회가 주최한 이 컨퍼런스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와 한국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70여 명의 선교계, 교계 지도자와 통일 전문가가 참석했다.

“공포도 주민의 경제적 권리를 누르기 힘들어”

그는 북한의 여전한 세습통치와 핵무기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자본주의가 들어가 주민의 사고와 사회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붕괴는) 김정은 주위 간부들이 그대로 있는 한 안 된다”며 “대신 북한에서 이념주의, 사회주의 복지의 성공사례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교과서에서만 본 1990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통해 10~20년 이내에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로 자유포럼에서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특별히 태영호 전 공사는 “아랍의 봄이 경제적 권리를 요구한 한 청년의 분신사살로 촉발되는 등 전 세계 사회혁명이 주민의 경제적 권리 요구에서 정치적 권리 요구로 변화된 경우가 많은 것처럼, 북한에서도 주민의 경제적 권리 요구가 정치적 권리 요구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영공장의 장마당 의존율이 75~80%로 높아지고, 중국에서 밀수 혹은 자체 생산하면서 북한 내 경제적 자율화가 대단히 많이 진척됐기 때문”이라며 북한 밀수꾼들을 많이 만들어 장마당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2009년 북한 시스템에서도 전 주민의 묵시적 저항운동으로 북한 정부의 화폐개혁이 실패한 사례가 있다”며 “공포도 주민의 경제적 권리를 누르기 힘들다”고 확인했다.

“교회는 탈북자 한국 입국 돋고 맞춤형 콘텐츠 제작”

태영호 전 공사는 이날 한반도 통일 시 가장 시나리오를 계속 공론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가 된다면 김정은과 한배를 탄 핵심층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통일 이후 김정은만 빼내고 나머지는 손을 잡고 새로운 북한을 건설하는 방안 등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지, 현재 정부 소유인 북한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가장 시나리오를 계속 공론화시켜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로를 보고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중국에 있는 수만 명의 탈북자가 한국 땅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고, 또 “북한 주민을 위한 맞춤형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어 올바로 북한에 들어보내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기존 성경책은 북한식 말투가 아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면은 만화성경을, 뒷면은 김일성 혁명 역사와 기록을 통해 김일성 혁명 역사가 성경 역사를 조금씩 변경해서 만든 것을 북한 주민이 알게 하고, 성경의 십계명과 북한의 10 대원칙을 비교하여 북한 사람들이 즉각 10 대원칙이 십계명에서 온 것임을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미국 남침례회 본부. ©남침례회 홈페이지

작년 美 남침례회 회원수 약 20만 명 감소

작년 미국 남침례회 회원 수 및 예배 참석자 수가 하락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최근 발표된 남침례회 연간교회연혁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회원 수는 192,000명 줄어든 1,480만명이었다.

주중 예배참석인원은 2017년 532만 명에서 2018년 529만명으로 줄었다. 소그룹과 주일예배 참석자 수는 334만 명에서 324만 명으로 줄었다.

이번 연구는 라이프웨이연구소가 ACP와 함께 실시했으며, 남침례회 전체 회원의 76%가 최소한 한 개의 항목에 응답했다. 응답하지 않은 회원들은 대략 1/4에 해당됐다.

라이프웨이연구소의 스콧 맥코넬은 “이 보고서의 절차 중 일부는 각주의 성도들

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부처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일부 주에서 협력하는 교회들을 확인하고 확정하는데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성도들의 수가 감소한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남침례회 실행위원회의 로니 플로이드 위원장은 이와 관련 “ACP 보고서는 남침례회 내부를 영적·전략적으로 재정비를 해야할 때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남침례회의 모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미국의 모든 마을, 도시, 카운티,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일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칙필레, ‘동성애 반대’ 입장 때문에 차별받고 있나?

美 연방항공청, 입점 반대한 공항들 조사



©칙필레 홈페이지 캡처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미국 외식업체 ‘칙필레’의 입점을 반대해 온 공항들이 종교차별 혐의로 연방항공청(FAA)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연방항공청은 더 힐(The Hill)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기업주의 종교적 관점 때문에 칙필레의 입점을 금지한데 대한 불만 사항들이 접수됐고, 이것이 연방법에 저촉이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연방법은 공항 운영진이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공항 내에서 연방항공청의 보조금이나 혜택을 받는 활동들로부터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칙필레의 입점을 금지한 공항은 샌 안토니오 공항과 버팔로 나이아가라 인터내셔널 공항이다.

샌 안토니오시의 앤디 세고비아 시 변호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 사무실은 연방항공청의 공지를 받았다. 이를 검토한 후 우리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버팔로 나이아가라 공항을 관장하는 나이아가라 프린티어 교통 당국은 공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현지 매체를 통해 “칙필레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식품 서비스를 관리하는 업체인 멜리웨어 노스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칙필레는 그동안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캐시(Cathy) 가족들의 동성애에 대한 보수적 관점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LGBT 활동가들과 대립해왔다.

이같은 이유로 사립대학인 라이더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대학교와 업체들이 칙필레 입점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펜실베이니아에 소재한 가톨릭 대학교

인 두케인대학에서는 “칙필레를 학교에 입점시키면, LGBT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고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쟁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반대가 오히려 기독교 기업에 대한 종교적 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라이더대학의 경우, 칙필레가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입점업체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입점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미국의 텍사스 주 의회는 칙필레 등 종교 단체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종교적 차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이른 바 ‘칙필레 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에 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칙필레 대변인은 ‘더 힐’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 회사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음식과 환대에 초점을 맞춘 레스토랑으로서 사회적·정치적 입장은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교, 인종, 성별,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포용한다”고 설명했다.

외식업체의 특성상 주말에 많은 손님들이 몰리지만, 칙필레는 주일성수를 위해 일요일에는 매장 문을 닫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약 8만 명을 고용하고 연매출 12조원을 기록하는 중이다. 또 고객지향형 서비스로 미국 소비자만족지수협회(ACSI)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이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2부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들어가는 교회 (제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424) 257-8169 / F.(424)257-8170

1부예배 오전 9: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밤이야 힘과 같으니라 (골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 www.sbhvisions.org

주일예배 오전 9: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45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회교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예배 오전 9:00 윤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교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친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예배 오전 8:00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11:30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집으로 오병이야기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예배 오전 9:00 윤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교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주일예배 오전 8:00 민경업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부한국어 예배 오후 1:30 한국학교(교)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1:00 Yout/College 오전 11:00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주일예배 오전 9:00 백정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화되 교회를 교회되 성도를 성도되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 오전 6:00 (화~금)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으로 새롭 밤에 달리는 예수그리고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주일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왕상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동체부, 유초등부
수요예배 오후 5:30(월~토), 오전 6:00(토)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아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2019년 6월 6일 목요일

9

기독일보

2019년 6월 6일 목요일

9

강혜진 기자

1부 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 예배(E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우부 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이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분
주요예배 오후 7:30분
Youth/ College 주일예배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일문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전 9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 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 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9:15 일어예배 예배 오후 1:30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부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C대학원부 오후 2:0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더음세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 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 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 예배 오전 11:30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4부 예배 오후 11:30(청년 영어)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을 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 찬양 오전 11:30 청년부 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어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 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 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 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 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 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부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임경남**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UNG
Inland Church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트럼프 대통령, 교회 주일예배 참석해 중보기도 받아



맥린바이블교회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2일 주일예배 강단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 블룸버그 영상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맥린바이블교회에 방문해 중보기도를 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대통령이 교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강단에 선 플랫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에 대고 “우리는 당신의 자비, 당신의 은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당신의 은혜, 자비,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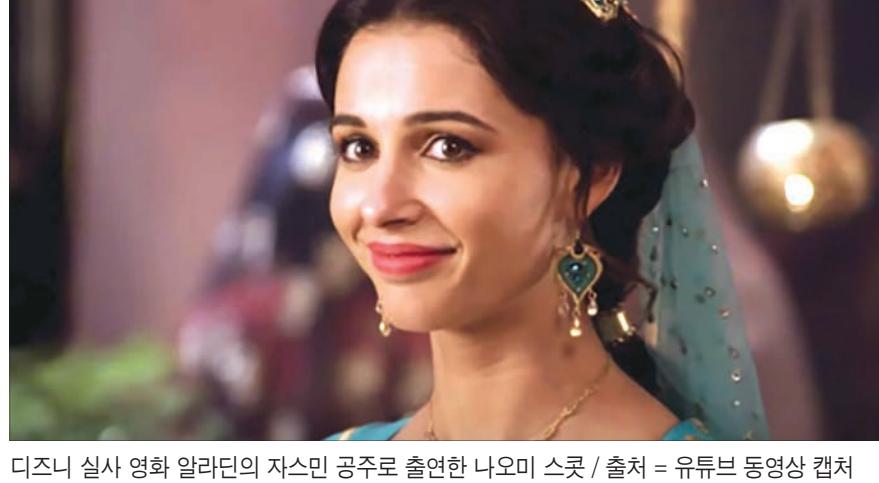
또 “당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알길 원합니다. 당신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의 죄를 모두 사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당신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가 정의롭고 의로우며 공평하고 선한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강단을 떠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강단을 떠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혜진 기자

영화 ‘알라딘’ 여배우 나오미 스콧 “신앙 없이 살 수 없어”



디즈니 실사 영화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로 출연한 나오미 스콧 / 출처 = 유튜브 동영상 캡처

새로운 버전으로 나온 디즈니 실사 영화 ‘알라딘’의 스타인 나오미 스콧(Naomi Scott)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깊은 신앙심을 고백했다.

화제의 영화인 알라딘의 재스민 공주로 분한 스콧은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인 ‘컴패션 인터내셔널(Compassion International)’ 블로그에 글을 남겼다. 그녀는 최근 컴패션 인터내셔널을 통해 자신의 교회와 함께 르완다와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다.

스콧은 컴패션 어린이 구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르완다를 방문한 이후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당신이 사랑받고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임하는 평화는 나를 좌초되지 않고 놀랄도록 안정되게 하고, 믿을 수 없도록 집중하게 한다”면서 “솔직히, 나는 이걸 분리할 수 없다. 오히려 결합해준다. 내 신앙은 내 존재와 내 행위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영국인과 인도인의 피가 반반 섞인 스콧은 알라딘의 피오나 공주로 캐스팅됐고,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슈퍼스타가 됐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격 대상”이라면서 “박해에 직면해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승현 기자

성령 충만으로 계급을 초월한 조상들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종종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사람들은 이웃을 향한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신약성경에는 놀라운 인간관계의 변화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는 놀라운 바울의 조언이 빌레몬서에 등장합니다. 주인인 빌레몬은 바울의 조언을 받아들여,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배려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계급의식을 넘어섭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의하여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예배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이 가져온 변화의 사건은 복음을 받은 우리나라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전북 김제시의 금산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양반인 여성을 차별하던 시대에, 지주 조덕삼(1867~1919)은 17세의 고아 이자익(1879~1958)을 마부로 세웠습니다. 어느 날 마방에 말을 맡기고 묵어가는 테이트(Lewis Boyd Tate, 1862~1929) 선교사를 만난 조덕삼은 선교사의 희생정신과 용기에 감동을 받고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의 처소로 내주었는데, 이것이 1905년, 금산교회의 출발이 됐습니다.

조덕삼은 3년 뒤 비로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조덕삼 장로의 손자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자익은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익히고 외웠습니다. 조덕삼은 자기 머슴을 아들과 함께 공부시키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1907년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 이자익과 함께 교회의 장로투표 후보가 되었는데,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조덕삼 영수(領袖)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라고 말하며, 먼저 피택 받은 머슴을 조금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조덕삼은 자기 머슴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자의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어 목회자가 되도록 학비는 물론 가족의 생활비까지 지원했습니다.

조덕삼은 3년 뒤 비로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조덕삼 장로의 손자

가 다선의 국회의원으로 유명한 조세형 의원입니다.

조덕삼 장로의 배려 속에 1915년 이자익은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합니다. 전직 머슴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적극 청빙한 사람이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장로회 종회가 1938년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후에도, 이자익 목사는 친일세력에 협조하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합니다. 이자익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1924년 13대 총회장을 지냈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총회장을 지내며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사람의 관점을 바꿉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신분에 대한 차별, 계급 차별과 지식의 유무에 대한 차별이 없어집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종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한 능력의 복음은 우리나라에서도 놀랍게 재연됩니다. 조덕삼 장로의 경우만 아니라, 독립신문의 지도자였던 윤치호(1865~1945)는 친부와 숙부의 도움을 받아 노비를 해방시키므로 계급을 극복하는 기독교인의 또 다른 효시가 됩니다.

섬김을 통해 누리는 기쁨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의 어머니는 일평생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날마다 새벽기도의 제단을 쓸어놨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위해 드린 중보기도 중의 하나는 제가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중보기도를 엿 듣는 중에, 어머님께 그런 기도는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저는 어느 날부터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캘거리에 가서 연합집회와 목회자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섬기는 중에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섬김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섬길 때 신비로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 섬길 때 누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새로운 만남의 기쁨입니다. 섬김은 낯선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기쁨을 줍니다.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목회자들을 통해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나눔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받은 것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고전 15:3). 제가 하는 일도 먼저 하나님께 받은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생산입자가 아니라 유통입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눌 때는 결손히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치유하는 기쁨입니다. 이민 목회자들에게는 상처가 많습니다. 이민목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 하는 일은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먼저 경청하는 일입니다. 또한 제상처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신비롭게도 상처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또한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헨리 나우웬의 말처럼

럼 상처를 저주 아래서 축복 아래로 옮겨 오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처를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상처는 치유되고, 상처가 영광이 됩니다.

넷째, 초심을 함께 가꾸는 기쁨입니다. 목회가 힘들면 목회자들은 초심을 잊게 됩니다. 초심을 상실하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잊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민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회자들을 만나 교제하는 중에 저의 초심을 함께 가꿀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기쁨입니다. 속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합니다. 그런 까닭에 가끔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A. W. 토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반응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크리스천들이 설교말씀을 들을 때, 흔히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반응을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설교 말씀을 통해, 중요한 권면을 드렸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들의 반응을 들으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아 다행스럽고, 또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 설교자로써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아멘”을 썩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감사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조용히 “아멘”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아마도 성품들이 온화하신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입술로 “아멘”하나, 마음으로 “아멘”하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받은 말씀이 심비에

새겨지고, 확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 진리를 깨달았을 때,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해보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영역에서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금식을 하거나 작정하여 기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저

막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축복하신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바람을 기다리는 요트와도 같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요트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뒷을 정돈하고 키를 조정하여 잘 준비하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쁠수록, 오히려 반응하는 신앙생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훈련하고, 배우고, 도전하고, 적용하고, 헌신하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피니언 칼럼

데이비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북가주에 위치한 데이비스 한인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1982년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로써 제자훈련과 세계선교를 꿈꾸며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Qualification)

1. 국내 복음주의적 정규신학대학원 (M. Div or Th. M 목회학 석사 혹은 신학석사) 이상을 졸업하신 분.
2. 교회에서 인정한 교단에서 인수를 받고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3. 영어권 사역의 중요성과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 언어가 능숙하고 설교가 가능하신 분.

■ 지원서류 (Application Package)

- 이력서 (사진포함)
본인 / 가족소개서와 목회비전서 (한/영)
학위증명서와 인수증명서
추천서 3부 (목사님 2부, 교인 1부)
최근 섬기는 교회주보와 설교말씀 (영어와 한어 각각 1개씩)

■ 제출처

온라인: <http://www.daviskoreanchurch.org/dkpsc>
우편: Davis Korean Church
ATTN: Sr. Pastor Search Committee
603 L st. Davis, CA 95616

■ 제출기한 (Due date)

2019년 7월 20일(토)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 해주세요. e-mail: dkpsc@gmail.com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저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된 이후 평신도 사역을 극대화 하는 교회, 새로운 예배의 간증을 꾀하는 교회, 소그룹과 양육 중심의 교회, 1세와 2세가 함께 세워 나가는 교회, 이민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의 목회상을 가진 이민교회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 비전에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나갈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 학력 : 정규 신학대학원 (M. Div)을 졸업하신 분
- 경력 :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당회원) 3년 이상 경험하신 분
- 소속 : PCUSA 소속 또는 개혁교단 소속으로 PCUSA 가입 가능하신 분
- 언어 : 영어와 한국어로 설교와 소통이 가능하신 분
- 신분 :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제한사항 : 본 교회의 현재 사역자나 또는 지난 7년내에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은 청빙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 Personal Information Form (PIF, Revised 3/2016, 개인정보양식)을 다운받아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 (PCUSA website <https://oga.pcusa.org>)
- 추천서 2통(봉인)
- 최종학력 증명서 및 인수 증명서 사본
- 목회계획서
- 최근 6개월 내 설교 2회분 (USB 또는 CD)
- 본인사진

제출마감 2019년 6월 11일 (우편인)

보내실곳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Attn: KCPC PNC (Pastor Nominating Committee)
2534 Duluth Hwy, Duluth GA 30097

문의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청빙위원회

PCUSA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교회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Ministry Information Form (사역정보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IF와 PIF 양식은 본교회 청빙안내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yunhap.org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속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CHRISTIAN BUSINESS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제단/직접제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점은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 1,000원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찬양 사역자 구함

기타 연주하시는 분

드럼 연주하시는 분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

기타 악기 연주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국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매달 2커플에게 드리는 야외촬영(2시간)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킴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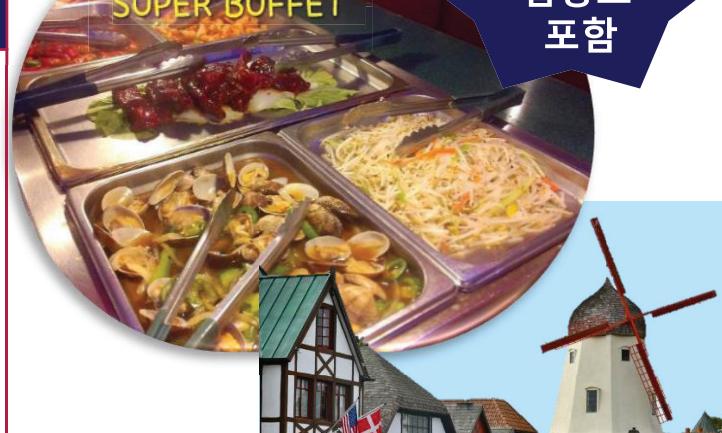
기독일보 “6월 봄꽃 축제 스페셜” 추억여행 “봄꽃 꽃 축제”와 “솔뱅크” & 카추마 호수

팁(\$10)별도

\$99

입장료
포함

지명	시간	2019년 6월 29일 토요일 일정표	비고
기독일보	07:00	- 3020 Wilshire Blvd #160, 기독 일보 집결 및 출발	
롬폭	10:00	- 봄꽃 도착 및 [봄꽃 꽃 축제] 참관	
뷔페	12:00	- 차이나 킹 슈퍼 뷔페 도착 및 중식	
역사 탐방	13:30	- 라뿌리시마 미션 주립 역사 공원 [역사탐방] - 주어진 미션 수행 [사진 촬영]	
솔뱅	15:30	- 솔뱅 도착 [관광] 후 L.A.로 출발	
카추마 호수	16:30	- 카추마 호수 경유 및 휴식	
기독일보	18:30	- 기독 일보 도착 및 해산 / 안녕히 가십시오	



포함 사항 - 대형 버스, 중식(The Buffet), 주립역사 공원 입장료,
불 포함 사항 - 모든 팁(버스 기사, 관광 가이드 등), 여행보험



Tel.213.739.0403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la@gmail.com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 뜻하지 않은 기회”

영화 <교회오빠> 故 이관희 집사의 아내 오은주 집사(下)

영화 <교회오빠>가 3주 연속 독립예술 영화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누적관객 65,399명을 기록했다.

영화 <교회오빠>는 대장암 4기 판정,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아내의 혈액암 4기 판정 등 연이어 고난을 맞은 故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전편에 이어, 오은주 집사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고난, 비전 등에 대해 게재 한다.

믿음이란,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난을 당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신앙이 없었다면 고난이 왔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제게 있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니까요. 고난에 대한 묵상은 참 많이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 그리고 뜻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고난에 대해서는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포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있는데… 통과하면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고요.”

경험에 비춰,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면.

“좋은 질문입니다. 고난 중에 진짜 무수히 많은 상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님을 꼽자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였어요. 회개하라고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아프게 돌아가셨기에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그럼 너는 얼마나 의인이기에?’라는 말이 목까지 치우르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하나요?’하고 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울며 기도한 적이 많았어요.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게 어떤 상처가 되는 말도,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시기 위해 허락하셨다고 수용하면, 그것 역시 저를 단련시키는 귀한 도구가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자하는데 있구나. 나를 낚주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길 바라시는구

나’하고 순종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고 거기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잘 챙겼어야지’, ‘남편을 잘 먹였어야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래’ 등 정말 많았습니다. 상처도 받았지만 제 죄를 보는 계기가 됐고, 감사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지 않았다면, 제 의로 충천해서 ‘정말 결혼을 잘못 한건가’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돌아보면 그 말들도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은 무엇보다 ‘사랑 없이 하는 말’인것 같아요. 분명 믿음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에 대한 신앙인들의 자세는 어 떠해야 할까요.

고난에 대해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낸 사람으로서 이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극한의 고난들을 통과해 왔지만, 여전히 고난이 무섭습니다. 마주하기 싫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난도,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과 비교하면, 저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화가 났어요. 향암치료 중에 질문을 들어서 화가 났어요(웃음). 뚱뚱까지 다 토하면서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더 살아야 하냐고 묻다니요.

남편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한 명씩 따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나중에 보고 ‘저런 말을 했었구나. 되게 멋있다’ 생각했어요(웃음). 저도 멋있게 대답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기 싫고 삶을 마무리하고 싶더라도,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게 우리 나그네 길의 현실이라고,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땅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 저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세우셨던 계획, 제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그 분의 뜻이기에, 그 분의 뜻을 이뤄드리고 제 삶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 불러주시겠지요.”

그렇다면, 비전이 있으신지요.



오은주 집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리며,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고 전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사랑 없이 하는 말’

뚱뚱까지 다 토하면서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던져진 질문 ‘왜 더 살아야 하는가’

남편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저를 향한 계획이 삶의 이유 돼

이관희 집사님이 영화에서 답한 질문을 물겠습니다.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PD님이 암환자들을 만나 이 질문을 하셨는데, 당시 저는 답을 못 했어요. 항암치료 중에 질문을 들어서 화가 났어요(웃음). 뚱뚱까지 다 토하면서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더 살아야 하냐고 묻다니요.”

남편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한 명씩 따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나중에 보고 ‘저런 말을 했었구나. 되게 멋있다’ 생각했어요(웃음). 저도 멋있게 대답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기 싫고 삶을 마무리하고 싶더라도,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게 우리 나그네 길의 현실이라고,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땅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 저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세우셨던 계획, 제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그 분의 뜻이기에, 그 분의 뜻을 이뤄드리고 제 삶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 불러주시겠지요.”

그렇다면, 비전이 있으신지요.

“사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삶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교사였기에 한 시간 단위로 수업을 마쳐야 했고, 쉬는 시간 10분간 해야 할 일까지 정해놓고 살았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 사

랑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남편을 데려가시고, 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삶을 경험하고 나서는 인생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세운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삶의 이유가 되었지,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 그 향기들이 잘 전해지는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렇게 멋있구나’를 보여주는 조그만 씨앗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신앙에 대해 고민해 보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마주하게 될 우리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고 참

기쁨임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뿐,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 맡겨야지요.”

마지막으로, 소연이와 집사님의 기도목록을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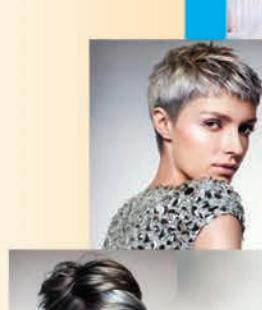
“엄마로서 투병하며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자리가 너무 힘들었기에, 이제 엄마로서 소연이 옆을 지키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소연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제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소연이에게는 이제 육의 아버지가 없지만, 주님께서 소연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될 줄은 몰랐지만, 남은 자로서 이 땅에서 남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쓰심을 통해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이관희 집사의 순진한 믿음의 거룩한 삶이 담겨 있는 영화 <교회오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여러 고난으로 상처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저희처럼 힘들게 투병하시는 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신의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 컬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이스티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컬라
\$40 up
매직 스트레이트
\$120 up

* 단, 컬라만 하시면 \$40 up

프로페셔널 웨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라는 마이스티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웨라 제품으로 컬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엉덩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신학교 사명은 무엇보다 훌륭한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

조지아센추럴대학교, 남가주 분교 설립 및 공개 세미나



조지아센추럴대학교 총장 김창환 박사. 김 박사는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GCU는 교육 선교를 내세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센추럴대학교(총장 김창환 박사, Georgia Central University 이하 GCU)가 6월에 남가주 분교를 시작하면서 공개세미나 및 리셉션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GCU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기반을 둔 종합대학(신학대, 경영대, 음악대, 컴퓨터공대)으로, 2017년에 ATS 정회원이 되고, 2019년 2월에는 한인이 세운 미국 내 신학교 최초로 문화인류학(Ph.D in In-

tercultural Studies) 철학 박사 학위 인증을 받았다. 이 학교는 1993년에 교육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설립되어 지난 27년간 미주 한인들의 신학 교육과 아프리카 등지의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에 집중해 왔다.

현재 본교 외에 뉴저지에 분교를 두고 있고, 남가주에는 지난 2016년에 주교부 BPPE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에 신학대학원(석.박사)이 세워진다.

GCU는 주님의교회(2100 S Stimson Ave, Hacienda Heights, CA 91745)에서 오는 6월 17일(월)부터 18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덕교 박사(합동신대원 총장 역임, GCU 교회사 객원교수)가 강사로 서서 ‘청교도신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제로 첫번째 공개 세미나를 진행한다.

두번째 세미나는 6월 20일(목)부터 21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최감종 박사(백석대 총장 겸

한인 설립 미국 신학대 최초 문화인류학 철학박사 학위 인준 남가주에 분교 설립 기념 공개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 ‘청교도 신학과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의 진수로마서 강해’, ‘성경해석의 원리와 적용’ 공개세미나 진행

신약학 교수 역임, GCU 신약학 교수)를 강사로 해서, ‘복음의 진수로마서 강해’를 진행한다. 공개세미나는 등록비(점심식사 포함)가 매 세미나당 50불이고 사전등록 시 50% 할인이 된다.

감사예배 및 리셉션은 6월 19일(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 까지 모든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신대원 인텐시브세미나는

6월 24일(월)부터 28일(금) 오전 9

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경기 박사(

풀러 한인목회학박사원 원장 역임, GCU 신대원 학장 겸 신약학 교수)가 ‘성경해석의 원리와 적용’ 주제로 이끌게 된다. 이 세미나는 신대원 학위과정 입학 절차를 거쳐 코스 월 학점으로 등록시 등록금 50%가 감면된다.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다.

GCU 남가주 분교 설립 진행을 위해 LA에 방문한 총장 김창환 박사

는 남가주에 신학교가 많이 있지만 좋은 경쟁 속에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미국 신학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즐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김 박

사는 “한인 신학대의 중심은 복음인데,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한다. 예전에는 미국의 지원 속에서 한국이 발전했듯이, 지금은 역으로 한국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때라고 본다”라면서 “신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 복음의 일꾼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육적 선교적 사명으로 본교는 교육선교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본교는 수년동안 캐나다에서 교육선교를 해왔고 올 가을부터는 아프리카 내지교회 교단과 협력하여,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목회자들에게 학위과정을 개설해준다”라며 “캐나다 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중남미 지역에서도 교육 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신학교가 신학자를 배출할 수 있지만, 훌륭한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의) 남가주분교 디렉터 김병학 박사 213-392-0409, claykim@gcuniv.edu 본교: 770-220-7905; 이메일: admissions@gcuniv.edu, GCU 웹사이트: www.gcuniv.edu

토마스 맹 기자

만약 낙태했다면... “23주만에 나온 미숙아, 기적 생존”



243g의 미숙아로 태어난 세이비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아기로 등록됐다.

세계에서 가장 작게 태어나 생존한 아기가 낙태 반대운동가들의 축복을 받으며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세이비(Saybie)라는 이름의 이 아기는 23주 만에 8.6온스(약 243g), 사과 만한 크기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최근 공식 트위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린 미국 단체 ‘생명의 권리’(Right to Life)는 “일리노이 주의 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극심한 낙태 법인 ‘SB 25’에 따르면, 세이비는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채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지 잔인하게 낙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낙태 반대운동가인 케이 펠너(K.Pelner)는 “23주 만에 8.6온스로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면서 한편에서는 낙태에 관한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극적인 현실이 믿을 수 없어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샤프메리버스(Sharp Mary Birth) 산모 전문병원은 작년 12월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미숙아 세이비가 이달 초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밝혔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며 세이비를 돌보았던 킴 노르비(Kim Norby) 간호사는 “정말 기적이다. 이는 확실하다”면서 감격했다고 한다. 이 병원의 신생아학자인 폴 워즈니악 박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12월 병원에서 세이비를 처음 살펴봤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아기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워즈니악 박사는 “처음 6시간 동안은 옆에 앉아서 아기를 지켜보았다. 아기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을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에게 매일 아기의 상태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죽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러나 아기는 병원의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퇴원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았다”면서 “보통 이러한 경우, 집에서도 산소 마스크를 해야한다. 세이비도 당연히 산소 마스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아기는 산소 마스크를 벗어버렸다. 이는 아기가 숨을 잘 쉴 수 있다는 의미다. 아기는 이를 너무나 잘 해냈고, 모든 팀원들이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가장 작은 아기들을 기록해 놓은 ‘타이니스트 베이비 레지스터리’(Tiniest Babies Registry)를 작성해 온 아이오와대학의 에드워드 벨 교수에 따르면, 세이비는 지금까지 기록된 미숙아들 중 가장 작다. 병원에서 공개한 영상에 등장한 세이비의 부모는 “임신 중독의 합병증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꼈고, 뱃속의 아기가 잘 자라지 못할까 걱정했다”면서 “병원에서 아기가 한 시간 내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다. 그런데 한 시간이 두 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달 초 그녀와 남편은 5파운드(약 2.27kg)의 건강한 세이비를 집으로 데려왔다.

워즈니악 박사는 “최근 세이비의 어머니로부터 아기의 몸무게가 6파운드 2온스(약 2.8kg)까지 늘었다고 들었을 때 솔직히 놀랐다. 정말 대단하다”면서 “처음엔 호흡하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심장도 건강하게 뛴다”고 전했다.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19년 학위수여식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이사진 교수진 및 졸업생 일동은 본교 학위수여식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위수여자

M.Div. | 조현숙, 최영호, 박재민, 송해민

일시: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마가교회 (마음이 가난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19년 여름학기 학생모집

참, (진리의길) 앓, (학문의 길) 삶, (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개강일자
6월 20일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우리 실존적 가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채동선 전도사

산타모니카 프리웨이에서 빠져나와 웨스턴 거리를 지나다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마가교회)라는 간판이 보인다. LA한 인터운에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았을 간판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이름에 이끌려 그 교회에 발을 내딛기도 했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5:3),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들어 보았을, 유명한 구절인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신 8가지 복 중 첫번째 복이다. 팔복 중 첫번째 복인 만큼, 마음의 가난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지점, 우리의 존재적 가난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지점이다.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책을 내며 유명세를 타게 되면 영적인 민감성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하는 마가교회 채동선 전도사는 “존재적 가난이 피조된 자의 실존”이라며, 마가교회를 “본인의 존재적 가난을 환경이나 삶을 통해서 절저히 경험한 자들,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보는 자들”의 교회라고 소개했다.

“정1장에서 땅이 훈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의, 피조된 자의 실존임을 깨닫게 되었다. 에덴동산에서 실과를 먹는 사람이 3인칭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깨달았다. 구원은 이 존재적 가난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 교회는 교인수가 500명이 넘지만, 건물을 구입하지 않고 렌트해서 사용하며, 노숙자를 위한 쉼터와 미자립교회, 장애인, 학창단 등 여러 단체에 공간을 무료로 개방해 왔다. 담임 목사도, 당회 제직회도 없이 채 전도사는 교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채동선 전도사, 그는 종신에서 현법과 교회사를 가르치며 여러 교회 분쟁을 중재한 채기은 목사(기독신보 주필)의 손자이며, 일제 치하 신사참배를 거부한 채정민 목사의 증손이지만 어린시절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여러 교회를 다니며 분쟁을 목격한 뒷에,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또 한번은, 젊은 순경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할아버지 를 구타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교회와 사회를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에 온 그는 “보이는 현상 이면의 숨어 있는 공식을 만들어 내며, 현상을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는” 물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현상의 이면을 탐구하는 물리학이 성경의 특



마가교회 채동선 전도사

내가 흑암, 혼돈이며 사망인 것을 보는 지점이 구원의 출발점
흑암이 절대로 빛을 찾아 갈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 갈 수 없다. 가난한 자가 모이면 빛은 반드시 온다
아이를 갖지 않는 대신 목회를 잘 하게 해달라고 서원기도

성, 글자 뒤에 있는 뜻, 진리를 발견하는, 망언득지(忘言得旨), 말을 버리고 뜻을 얻는 것”과 잇달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0대 초반 사업 실패를 겪으며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다. 알콜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마약에도 손을 냈다. 몇차례 자살시도 후, 자기 자신이 “흑암, 혼돈, 사망”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절저한 자기 부정의 지점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

하고 심령에 통화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사 66:2) 말씀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깨어진 사람, 부서진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했다. 모든 사람은 가난의 지

점, 부족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죄인의 자리는 예수가 찾아오는 자리이고, 흑암이 절대로 빛을 찾아 갈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 갈 수 없다. 공허에는 충만이 찾아 온다.

베데스다 병자도 연못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 받았다. 그것이 마가교회다. 내가 흑암이고 혼돈이며 사망인 것을 보는 지점에서 우리 구원이 출발한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조용히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려 했는데 많은 이들이 찾았아왔다.”

처음에 마가교회를 찾아온 이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아내가 안경점을 경영하는데 매상을 전부 교회를 위해 사용했고 결국 집까지 빼졌다. 다행히 다시 집을 찾은 후에는 교인들과 같이 살았다.

그러다 2017년 6월 이 교회는, 한

인타운 4가와 노르만디에 위치한 주차공간 부지에 부동산 업체가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철거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조차도 채 전도사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잠시 멈춤’의 시간으로 해석했다.

“주마간산(走馬看山)이라는 말이 있다. 달리는 말에서는 산이 안보인다. 말에게 물을 주려고 멈춰 섰을 때 비로소 산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목회를 하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과한다. 우리가 잠시 멈출 때, 진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교회도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안식년을 갖자’고 했다. 가정예배도 드리고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며 9개월 간 안식년을 갖고, 새 장소로 들어갔을 때, 2001년 6월 처음 마가교회를 개척했을 때와 같은 장소에서 17년만에 예배를 드리게 됐다.”

7번째 들어간, 베벌리에 있던 교회는 3층 전체를 렌트해서 몽골교회, 히스페니교회, 선교단체, 문화예술 공간, 소극장, 영어 시민권 가르치는 곳, 장애 선교회, 무료 한의사 진료소 등 20개 가까이 되는 단체들에게 4년간 무료로 제공하며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커뮤니티와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새로운 교회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금도

마가교회는 오전 8시 반, 10시,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2시부터는 히스페니. 저녁 7시에는 몽골교회에서 같이 쓰고 있다. 늘 재정이 어렵지만 한인교회가 재정을 담당하고 뒤늦게 출발한 다른 민족의 교회들을 도와주고 있다.

그는 교회에서의 삶과 평소의 삶이 달라서는 안된다며, 평소의 삶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라고 당부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평소의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설교자가 ‘거룩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해야한다. 나는 성도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더라. 목회자와 교인들은 자기 실존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교회에 와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가정의 모습도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줘야 한다.”

“정직한 삶이 어디이냐? 교회도 가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죄인들이 모

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신다. 악은 우리고 선은 하나님이다. 악은 선의 부재이며 흑암은 빛의 부재이다. 없는 자, 가난한 자가 모이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올 수 밖에 없다.”

채 전도사는 “선과 악을 이원론이 아니라 부재로 본다. 악과 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은 선이 필요한 존재”라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오심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전도사는 성화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 받은 자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화는 속이 변하는 것이며, 타인을 향하던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려니 여인은 죄 없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용서 받은 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 받은 자로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브라함이 ‘이 성에 의인이 10명 있다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다르게 접근한다. 그에 따르면, “의인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 한다는 것. 그가 자녀를 갖지 않은 것은 사업실패로 인한 좌절과 절망, 이를 극복한 후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한 서원기도 때문이다.

“사업을 경영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 아이를 안 갖는 대신에 목회를 잘 하게 해달라고 서원기도 했다. 이후 할아버지의 임종을 겪으며 자녀를 갖고 싶어져 아이를 가졌는데 3개월 후 아내가 하혈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교회는 이러한 해야 한다는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와야 한다. ‘내가 저 놈 때문에 교회 안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말하는 채 전도사는 마지막으로 목회에 대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교회 성장, 발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디 한 기자

오는 6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로텍스호텔에서 목회자 초청 설교 세미나가 있다. 강사는 채동선 전도사이고 회비는 무료이다.

문의) 213-739-0403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목회자 초청 설교 세미나

영혼을 살리는 설교!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시켜주는 설교!

여기 교회개척 18년동안 오로지 설교로 교회부흥에 전념하여

출석교인 500명을 이룬 한 설교자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한다.)

교회부흥에 목마른 여러분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설교에 관심있는 성도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시 : 2019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 로텍스호텔 세미나룸 (Olympic + Gramercy Dr.) 3411 W. Olympic Bl. L.A CA 90019
대상 : 목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회비 : 무료 (선물, 점심제공)

주관 :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후원 : 남가주 목사회, 총신대학교남가주총동문회, 미주복음방송, BIZPOST그룹, 이음카페

강사 채동선 전도사
(마가교회 담임)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꿈의 성지순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0박
11일

예루살렘 단기선교 팀원 모집

믿을 수 있는 현지선교사의 인솔!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 시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10일(목) 10박 11일
대 상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일반성도 등)
접수마감	2019년 7월 15일(월) 접수시 \$500 디파짓
모집인원	40명 인솔 : 현지선교사 (GMS 소속, 강태윤 선교사)
회 비	\$2,500 (비행기표, 숙식 포함) 회비는 3회 분할 은행구좌로 납부

은행
구좌

Bank of America
NAME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라우팅넘버 : 121000358 계좌번호 : 325104511374
Pay to the order: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Check 보낼곳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1회▶7월 30일까지 \$500, 2회▶8월 30일까지 \$500, 3회▶출발 7일전 \$1,000
* 여행취소는 여행 30일 전에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위약금 \$500입니다

여 행	상 세 일 정	교통편 및 식사
1일	이스라엘 도착	항공, 기내식
2일	예루살렘 지역 (감람산, 승천 둑, 주기도문 교회, 베트바게, 파노라마, 눈물 교회, 젯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 통곡의 벽, 기훈샘, 히스기야 터널, 시온산, 다윗묘, 마가의 달락방, 베데스다 못, 채찍 교회 십자가의 길, 성묘 교회)	전용차량, 현지식
3일	사해 지역 (요단강 세례터, 맛사다, 엔게디폭포, 쿰란 공동체(사해 사본 발견지), 사해수영, 여리고, 시험산)	전용차량, 현지식
4일	베들레헴 탄생 교회, 우유동굴, 목자의 뜰헤브론, 막벨라 굴, 헤로디움, 드고아 아모스선지자 고향, 헤르툰 동굴	전용차량, 현지식
5일	사무엘 묘, 벤엘, 사마리아성, 야곱의 우물, 세겜, 그리심산, 실로 조망	전용차량, 현지식
6일	유대광야 요단계곡, 벤산, 텔단, 가이사랴 빌립보, 골란고원, 팔복교화, 갈릴리 호수 배타기, 갈릴리 호텔 숙박	전용차량, 현지식
7일	오병이어 교회, 베드로 수위권 교회, 가버나움, 가나호인교회,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 므깃도, 갈멜산 무흐라카, 지중해 가이사랴	전용차량, 현지식
8일	에인카렘, 세례요한 고향, 벤세메스, 소렉골짜기, 아세가, 엘라골짜기, 벤구브린, 아들람굴, 라기스	전용차량, 현지식
9일	네게브 남방, 브엘세바, 초대수상 벤구리 온묘, 엔 아브다트, 아브다트, 마크테시 라못 분화구	전용차량, 현지식
10일	휴식	전용차량, 현지식
11일	본국으로 출발	항공, 기내식

주관 : 기독일보(사업본부) T.(213)739-0403, (213)330-511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 BIZPOST GROUP, 한우리여행사